올 여름 휴가 '집으로' U턴

고유가·고물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방콕'

여행업계 '울상'…전남 유명 관광지는 예약 폭주

해마다 여름 휴가철만 되면 활기를 띠던 여행업계가 올해는 울상을 짓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경비 부담으로 휴가를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휴가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20일 광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성수기와 비교할 때 해외여행객은 급감했지만, 제주도와 전남도 내 유명관광지를 찾는 국내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롯데관광 광주지점의 경우 지난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은 3천여명 가량 되지만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수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중국 해남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예약이 저조해 취소했을 정도다. 동남아와 일본 등 인기 여행지도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한 연휴기간 등 일부 날짜에만 예약이 몰려있는 실정이다.

모두투어 광주지점은 지난해 여름 성수기 때 1천700여명의 해외여행객을 유치했지만, 올해의 경우 7월 예약률만 해도 300여명 정도가 줄었다. 8월의 경우도 초순과 광복절 전후에 예약이 완료됐을 뿐, 대부분의 여행상품이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국내여행은 지난해 여름 성수기 상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대한항공 광주지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예약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7월말부터 8월초, 광복절 전후, 주말 등의 예약률이 높은 편이다. 아시아나항공 광주지점도 7월과 8월 예약률이 67~69% 정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제주도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은 전남도 내 유명관광지에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의 경우 177개 객실의 7, 8월 예약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다. 예약률은 75%대로 주말 객실은 예약이 끝났고, 평일 일부 날짜에만 예약이 가능하다. 담양군 금성면 담양리조트도 42개 객실의 여름 예약률이 80~90%대에 달하고, 주말은 물론 평일도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최근 여행정보사이트인 '캐빈스토리'가 실시한 7월과 8월 휴가철 국내 펜션 예약률 조사에서도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여행의 경우 출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펜션 예약 및 문의가 오는데 올해는 6월 중순부터 7월과 8월 성수기 예약에 관한 문의가 밀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달 초 전국 4천300세대를 대상으로 휴가 계획에 대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4.5%만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를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부담을 꼽은 세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업무 27.9%, 자녀 학업 12.7%, 교통 혼잡 7.5% 순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 광주지점 관계자는 "여름 휴가가긴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비용이 너무 올라 국내로 유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태풍 피해 줄이기 제7호 태풍 '갈매기'로 인해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었던 20일 화순군 화순읍 도웅리 한 과수농민들이 바람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다음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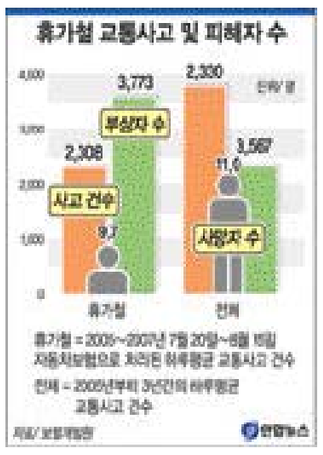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보험개발원 분석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다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휴가철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2천308건으로 3년 전체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2천330건)보다 0.9% 적었다. 사망자의 감소 폭은 더 커서 휴가철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9.7명으로 3년 전체의 하루 평균 사망자 11명보다 11.8%나 줄었다. 그러나 부상자 수는 휴가철이 하루 평균 3천773명으로 3년 전체의 하루 평균 3천567명보다 많았다. 부상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차량 탑승자가 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윤락업주 '부당 이익금' 추징할 때

성매매 여성에게 준 임금은 빼야

광주지법 판결

업주가 성매매 여성과 안마사에게 준 임금은 성매매 알선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감면토록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안마시술소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성매매 여성과 안마사에게 줘 왔기 때문에 이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만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드러난 매출액 가운데 임금을 뺀 8천만원 가량만 추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 지역 폭력조직 S파의 부두목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목포시 상동에서 A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돼 원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억2천만원 가량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경이 전입 2일 만에

경찰서에서 자살 기도

지난 19일 밤 11시40분께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내무반에서 점호를 끝낸 이 경찰서 소속 A(20) 일경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의경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A 일경은 병원에서 위 세척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일경은 지난해 12월 여수경찰로 배치돼 근무하던 중 전날 목포경찰서로 전입돼 적응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방순대 직원과 의경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서해안고속도 형제 死傷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께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기점 18.7㎞) 무안 4터널 입구에서 이모(26)씨가 몰던 레간자 승용차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동생(24)이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태풍 소멸… 큰 피해 없었다

당초 광주·전남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제7호 태풍 '갈매기'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소멸됐다. 그러나 국지성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일부 논밭의 침수와 과실농가의 낙과 피해를 낳았으며, 선박운항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는 21일까지 천둥·번개와 함께 5~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태풍 '갈매기' 소멸**= 태풍 '갈매기'는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 17㎳(61㎞/h)로 북상하다 20일 오후 6시께 서해상에서 소멸됐다. 광주·전남지역은 20일부터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큰 피해가 우려됐었다.

하지만 빠르게 북상한 태풍은 지난 주말과 휴일 보성 36㎜, 장흥 28㎜, 곡성 20㎜ 등 광주·전남지역에 20㎜ 안팎의 비만 내린 뒤 소멸됐다. 이로 인해 장흥과 보성 일부 논밭이 침수되기도 했으며, 낙과 피해도 발생했다.

◇**여객선·항공기 등 결항·지연 잇따라**= 여객선과 항공기의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다. 목포항의 경우 20일 오후 현재 20개 항로의 28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단됐으며, 여수항은 지난 19일~20일 15개 항로의 64척 등 대부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은 20일 오후 2시40분 서울을 출발, 오후 3시30분 광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OZ8705편 등 2편이 20여분 가량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20일 오전 8시30분 서울을 출발, 오전 9시20분 도착 예정이었던 KE8705편을 비롯해 모두 2편이 10여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만취 여고생 車 밑 잠자다 119 출동

쌍나팔

○…만취한 여고생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들어가 잠을 자다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0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J 가구점 앞에 주차된 갤로퍼 차량 밑에서 광주 A 여고생 정모(17) 양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것.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것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던 정양은 차량 밑으로 들어간 구조대원들에 의해 담요에 둘러싸여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동부소방서 구조대 한 관계자는 "구조된 정양은 구급차에 실려 후송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며 "자칫 발견이 안 되고 방치됐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